

송도캠퍼스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제물포캠퍼스 22100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대길 319 미추홀캠퍼스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인천대학교 대외협력홍보팀 Tel. 032-835-9331 Web. www.inu.ac.kr



시간에서 미래로, 공간에서 세계로 국립인천대학교 소식지



SUMMER 2017. vol.74



# INU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관심과 나눔을 부탁드립니다

소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학업을 포기해야할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학교 선생님들은 소녀를 한 장학재단에 추천했고, 주변의 배려로 무사히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장학금을 타서 나보다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다고.

4년 뒤, 소녀는 결심대로 1,100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소녀의 사정도 넉넉지 않았지만 결코 후회는 없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학우들이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으니까요.
어렸던 소녀는 어느덧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교단에 서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인생의 가장 끊임없고도 다급한 질문은, 내가 남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것'이라는 명언을 좋아한다는 그는 "경쟁이 만연한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더불어 사는 기쁨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눔의 다른 말은 '기적'입니다. 내가 웃음 짓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기적이 우리대학 곳곳에도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 이 이야기는 전주교육대 <mark>졸업</mark>생 강민주 씨의 사연입니다. -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무통장 후원하기 :** 농협 1325-01-000611 예금주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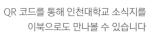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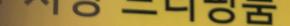
### 인천대학교 소식지

2017년 여름호 통권 제74호

발행일 2017년 8월 발행인 조동성 발행처 인천대학교 대외협력홍보팀 032-835-9331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www. inu.ac.kr 디자인·인쇄 웨스트코(주) 032-423-1988

<u>01</u> 함께 만드는 미래	변화와 혁신의 1년, The First에서 'Only one'으로 INU, 문화도시 인천의 꿈을 노래하다세계 바이오·백신 인재 양성의 메카가 되다도전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기초과학연구소 '2017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선정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자율주행팀	1 1 1
<b>02</b> 비전이 완성되는 캠퍼스	45개국이 하나가 된 시간, 글로벌 대학을 향한 힘찬 비상 혁신의 바이오경영, 세계 100대 대학의 꿈을 견인하다 캠퍼스 이모저모 INU뉴스	바이오경영학과	1 2 2 2
<u>03</u> 희망을 전하는 약속	언제나 함께 걷는 든든한 동행 파트너 동문 소식 인천대를 이끄는 힘, 예술인들의 아름다운 기부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의 길, 함께 만드는 상생 파트너 우리의 작은 움직임으로 변화될 인천대의 행복한 미래 발전기금 소식 발전기금 현황	산업공학과 85학번 김광오 총동문회장 조형예술학부 '송도시대 발전기금展' (주)에이텍 한가진 대표 정보기술대학원 개원 20주년 기념 동문 약정회	2 2 3 3 3 3 3 3 3





IN-U ; 함께 만드는 미리

조동성 총장 취임 1주년



조동성 총장 취임 1주년 인터뷰

우리대학 조동성 총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공간에서 세계로, 시간에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건,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고, 해야 할 일도 많다. 보다 구체화된 목표도 세웠다. 또 한 번 시작될 변화와 혁신의 제2막. 지금, 우리대학의 거침없는 행보를 바라보는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hotograph 최주근

#### 글로벌 석학 5人 영입, 바이오특화대학 박차

사립에서 시립을 거쳐 국립대학법인까지. 우리대학은 국내 대학 성장의 역사를 새로 썼다. 단순히 형식적인 변화만은 아니었다. 교육과 연구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 탄탄한 내실도 다졌다. 2013년 이후 4년간 젊은 인재 위주의 신임 교원 140명 채용, 2012년 대비 4% 향상된 졸업생 취업률 등 가시적인 지표들이 이를 증명한다. 그 중심에는 조동성 총장이 있었다. 2016년 취임한 조동성 총장은 안주 대신 변화를 택했다.

혁신을 위한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대학은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혁신하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들보다 뛰어난 대학이 아닌,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대학,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유일한 대학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지난 1년간 조동성 총장은 우리대학 성장의 중심축을 교육에서 '연구'로 전환하는데 힘썼다. 이러한 노력에는 명확한 목표가 뒤따랐다. 노벨상을 바라보기 보다는 매출 1조 원을 올리는 창업 기업 1,000개를 만드는연구에 집중하는 대학, 다시 말해 개인과 학교의 명예보다는 사회와 일류에 기여하는 연구 중심 대학을 만들겠다는 포부가 그 안에녹아 있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은 '미래 인류에 봉사하는 동북아 대학'을 비전으로,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정했다.

그 중심에는 '바이오'가 있다. 조동성 총장이 바이오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바이오는 지역사회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가 성장어젠다로도 주목받고 있다. 우리대학의 탁월한 입지 여건도 빼놓을수 없다. 수많은 바이오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한 송도국제도시는전 세계가 인정하는 바이오클러스터 최적지로 손꼽힌다. 이에 대응하는 조동성 총장의 대응은 빠르고 명확했다.

시작은 세계적인 교수진 확보였다. 우리대학은 지난 7월, 한국인으로서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과학자로 알려진 UC버클리 김성호교수를 시작으로, 유전체 판독의 새 지평을 연 하버드 유전체센터의 이민섭교수와 1999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던 〈국경 없는 의사회〉前회장 우니 카루나카라(Unni Karunakara) 예일 의대 연구교수,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Bill&Melinda Gates Foundation) 수석고문 랄프 클레멘스(Ralf Clemens) 교수, 네덜란드 빈데사임 대학 총장직을 역임했던 앨버트 코넬리센(Albert Cornelissen) 교수 등 바이오 분야에서 저명한 석학 5인을 석좌 및 초빙교수 자격으로 영입했다. 이를 통해 우리대학을 글로벌 바이오 선도 대학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조동성 총장이 그리는 큰 그림이다. 이외에도, 우리대학은 스마트 물류, 미래 시티, 기후 변화, 통일 후 통합, 로봇 등에



관한 연구봉우리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지역사회와 미래 인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학의 역량을 키우는 것, 여기에 우리대학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

#### 국내 최초 '매트릭스 칼리지' 구축

'매트릭스 칼리지'. 조동성 총장이 이끌어온 변화와 혁신의 여정에서 빠트릴 수 없는 콘텐츠다. 매트릭스 칼리지란, 기 초적 학문과 기업의 수요를 함께 배치해 현장 맞춤형 인재 를 양성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대학 속 기업'입니다. 50여 개 국내외 기업과 연구소, 국가기관, NGO, 병원, 학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각 조직에서 설계한 교육 과정 및 인 재상을 매트릭스 칼리지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도 이 같은 모델을 타 대학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반응을 보 였을 정도로 경쟁력 있는 시스템이라 자부합니다." 여기에 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책임과 사명, 즉 우리대학을 지역사 회에서 국가, 나아가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 연구 수 요를 충족시키는 교육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조동성 총장의 의지가 담겼다. 이외에도 우리대학은 평생교육원을 평생대 학으로 바꾼 트라이버시티(Tri-Versity)를 개설해 40세 이 상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해 정규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준비로 현재 의원 입법까지 신청해 둔 상태다. 또한 대학 간 연계 및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복 수 학위 활성화와 (바이오)공동 연구소를 통한 특성화를 꾀 하고, 문화·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대학으로 인정받기 위한 다채로운 노력들도 이어가고 있다. 장밋빛 청사진을 실현하 는 과정에서 진통이 없을 리 만무한 법. 하지만 조동성 총장 은 이를 우리대학을 진정한 국립대학으로 재탄생시키기 위 한 산통으로 여기고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는 소신을 밝 혔다. 일등(The first) 대학이 아닌, 유일한(Only one) 대학. 조동성 총장과 우리대학이 함께 이뤄나가야 할 사명이자 목 표이다.

# INU, 문화도시 **인천의 꿈을 노래**하다

#### 제1회 인천뮤직 〈힉엣눙크〉 성료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이 캠퍼스를 감쌌다.
7월 1일부터 8일까지 펼쳐진 '제1회 인천뮤직, 힉엣눙크'.
무르익어 가는 여름밤을 수놓은 선율은 캠퍼스를 넘어 도시 곳곳으로 퍼졌다. 그렇게 인천은 아시아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이 함께했던 감동의 순간, 우리대학이 문화 도시 인천의 꿈을 노래했다.

edit 유서진



#### '여기에서 지금', 국제음악회의 막이 오르다

7월 1일, 우리대학 대공연장에서 '제1회 인천뮤직, 힉엣눙크'의 막이 올랐다. 이번 행사는 우리대학과 세종솔로이스츠가 세계 음악계의 새로운 흐름을 국내에 알리기 위해 마련한 클래식 음악 페스티벌이다. 음악회의 주제인 '힉엣눙크(Hic et Nunc)'는 프랑스 문호 발자크가 쓴 〈결혼계약서(The Marriage Cotract)〉에 나오는 라틴어로, '여기에서 지금(Here and Now)'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우리대학은 '힉엣눙크'를 통해 인천이 문화도시로 일어서고자 하는 초석을 세우고, 예술과 기술이 융합해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고자 이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공연은 크게 세 가지 모티브로 기획됐다. 첫 번째는 '해외에서 찾아오는 콘서트'다. 내국인을 중심에 둔 기존 국제음악회들과는 달리, 연주자와 관객 모두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정한 국제음악회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두 번째는 '가르치고 배우는 콘서트'다.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마에스트로들에게 직접 실기를 전수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주어졌다.

실제 9개국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참가를 신청했고, 예일과 줄리어드 등 명문 음악대학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찾아가는 콘서트'다. 오케스트라가 직접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찾아 문화 공연 접촉 빈도가 낮은 대중들에게 예술적 감성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고, 이를 통해 우리대학은 국립대학의 마땅한 사명이자 책임인 '사회 공헌 활동'도 성실히 수행했다.





#### 문화로 교감하고픈 우리대학의 진심과 배려

1일 오후 6시, 예일대학교 음대 로버트 블로커(Robert Blocker) 학장이 무대에 오르며 본격적인 음악회의 막이 올랐다. 그는 '예술의 역할과 리더십'을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쳤고, 아시아 최고의 문화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인천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 강조했다. 함께 자리를 빛낸 조동성 총장도 견해를 피력했다. 조동성 총장은 음악 전공자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유로, 절제와 선도적자세, 협업, 창조성, 리듬 감각 등을 언급하며 대담을 이어갔다.

이어 7시부터 진행된 오프닝 콘서트에서는 배우 윤석화, 올레 아카오시 예일대 첼로 교수, 신수정 전 서울대 음대 학장 등 9명의 연주자가 출연해 현대와 고전 을 넘나드는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였다. 이어 쇼팽·발라드 1번 사단조 Op.23, 얼 킴·린다에게, 멘델스존·피아노 삼중주 1번 라단조, OP.49 등 주옥같은 곡 들로 청중을 감동시켰다. 특히, 〈레드 바이올린 카프리스〉 연주에서는 영화 〈레 드 바이올린〉에 등장한 1683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코베트'가 사용 되어 화제를 모았다. 이후에도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송도국제도시 트라 이보울에서 열린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회와 우리대학 소극장에서 펼쳐진 학생 들을 위한 공연으로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인천지방경 찰청, 청라엘림아트센터 등지에서 각계각층 관객들과 교감하며 총 14회에 걸 친 고품격 연주 릴레이를 마쳤다. 이번 음악회의 모든 좌석은 무료로 제공됐다. 학교 구성원은 물론, 시민들까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 다는 우리대학의 진심이 담겼다. 관객들도 이에 화답해, 첫 공연이었던 '교수와 젊은 비르투오소-1'의 500개 모든 좌석이 뜨거운 관심과 열기로 채워졌다. 음 악회에 참석한 신기원 씨는 "살기 바빠 이런 대규모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우연히 집 근처 인천대학교에서 무료 공연을 한다는 얘길 듣고 와봤는 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공연이 자주 열 렸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 예향으로 다시 일어서는 인천을 꿈꾸며

조동성 총장은 "앞으로 '인천뮤직 힉엣눙크'는 세계인 모두를 위한 축제로 거듭날 것이다. 서해 바다에 황금빛 노을이 물드는 인천의 풍광을 바라보며 음악으로 지구촌과 소통하고 예술로 '예향'의 지위를 다시 찾는 인천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이번 음악회에 깃든 가치를 설명했다. 세종솔로이스츠 강경원 총감독 역시 "음악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카네기홀과 같은 명 공연장에서나 볼수 있는 수준 높은 연주자를 초빙해 선구적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 내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음악가로 손꼽히는 클라리넷 연주자 요르그 비드만이카네기홀에서 연주한 프로그램을 인천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며 힘을 보탰다

을 가을, '제1회 인천뮤직 힉엣눙크'의 감동이 다시 한 번 찾아온다. 오는 9월 18일 제2의 글렌 굴드라 불리는 프랑스 피아니스트 다비드 프레이와 세종솔로이스츠의 협연이 마련되어 있고, 그 후 예일대학교 음대 로버트 블로커학장의 피아노 리사이틀도 펼쳐질 예정이다. 2017년, 우리대학이 아시아 최고 음악회 탄생을 위한 막을 올렸다.





성장 파트너

# 세계 바이오·백신 인재 양성의 메카가 되다

이탈리아 시에나대학과 공중보건 석사 과정 공동 운영

edit 유서진

지난 6월, 우리대학은 국제백신연구소와 협력하고 이탈리아 시에나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중보건 석사 과정 론칭 행사를 개최하고, 2017학년도 2학기 개강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그 안에 우리대학 성장의 해답이 있다.

#### 글로벌 명문 시에나대학과 '맞손'

학생 수만 무려 1만6,000여 명에 달하는 이탈리아 시에나대학은 1240년 설립된 글로벌 명문이다. 오래 전부터 공중보건 석사 과정의 전신인 '백신학과 제약 임상 개발' 최고위 석사 과정을 운영해 오는 등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기관으로 손꼽힌다. 이번 공동 운영이 결정되기까지 우리 대학은 각고의 노력을 펼쳤다. 우리대학이 먼저 적극적으로 시에나대학에 협력 의사를 밝혔고, 공감을 이끌어내기까지 면밀한 검토와 논의 과정을 이어갔다. 마침내 글로벌 바이오 인재 양성을 위한 두 대학의 의지가 맞닿았다. 우리대학이 공중보건 석사 과정을 도입한 이유는 명확하다. 송도국제도시를 거점으로 관련 산업과 교육을 확대해 국내외 선순환모델을 구상하기 위해서다. 현재 30여 개 바이오 관련 기업이 등지를 튼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메카'로 급부상 중이다. 이러한상황에서 우리대학이 선도적으로 첨단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여기에는 수준 높은 인재 양성을 통해 공중보건과 백신, 신약 개발 분야에서 우리대학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조동성 총장의 의지가 크게 반영됐다.

#### 최고의 전문가가 지도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 과정

우리대학 공중보건 석사 과정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로 꾸려진 '어벤져스급' 지도자를 꼽을 수 있다. 옥스퍼드, 예일, 존스홉킨스, 임페리얼 칼리지 등의 교수진과 빌 앤멜린다 게이츠 재단,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백신연구소(IVI), 미국국립보건원(NIH), PEK 등 저명한 국제기관의 전문가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 뭉쳤다.

두 번째는 '업계-학계 간의 독특한 파트너십 운영'이다. 공중보건 석사 과정은 생명공학산업계 전문가, 연관 기업 및 규제 기관 관계자가 주 대상이다. 이들은 생물학적 발견이나 평가, 개발 및 생산에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고 제조 과정상의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한 후 현업에 복귀하게 된다. 실무형 인재 양성. 바로 여기에 국내 대학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없는 엄청난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다.

정책대학원에서 20명 규모로 추진되는 공중보건 석사과정은 우리대학과 시에나대학에서 총 1년 간 교육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며, 과정 이수자는 우리대학과 시에나대학의 공동 석사학위를 획득할 수 있다. 총 5개 모듈과 360시간 이상의 강의와 세미나로 18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또 현장 인턴십을 통해 6개월간 교육을 받는다. 이번 과정의 특징은 전문성의 깊이에 있다. 시에나대학은 10년 전부터 개발도상국 젊은 의사들을 대상으로백신학과 제약 임상 개발 석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백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우리대학과의 공동 운영 과정에서는 저분자 및 생물학 제약 개발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

#### 우리대학이 그리는 인류 건강의 밝은 청사진

우리대학과 시에나대학의 공동 학위 과정에는 세계 보건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도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다. 국제백신연구소(IVI)는 1990 년대 초 유엔개발계획(UNDP)이 설립을 주도한 기 관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1997년 한국에 둥지를 틀었다. 이를 통해 우리대학 은 세계 보건과 백신 개발 분야에서 폭넓은 전문성 과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국제백신연구소(IVI) 제롬 김 사무총장은 "이번 공 동 학위 과정은 백신이 필요한 전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 백신과 생명공학 신기술을 개발 보급하기 위 한 노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동성 총장 역시 "이번 석사 과정은 향후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열정과 지식으로 무장해 이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은 미래 대한민국의 생명공학산업 성장을 주도하며 전 세계인의 건강과 복지를 중진시키는 핵심 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도전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

|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자율주행팀 | 이영섭 지도교수

edit 신경화 photograph 이덕재

현대자동차가 주최한 '제13회 미래자동차 기술공모전: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가 지난 5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 서킷에서 열렸다. 예선을 거쳐 이날 치러진 본선 대회에는 국내 내로라하는 대학 팀의 불꽃 튀는 경쟁이 벌어졌다. 대회에 첫 출전한 우리대학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자율주행팀은 '첫 도전'의 무게를 이겨내고 당당히 3위를 차지했다.

#### 쉽지 않은 도전, 기어이 해내다

1년하고도 반년을 더 넘겨 준비했다. 첫 자율주행 연구팀 조직을 시작했던 2015년 겨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대회 주최 측은 각 대학에 연구용 차량을 기본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레이더 및 센서, 라이더 GPS 등 하드웨어 부품까지 동일하게 지원했다. 각 팀의 과제는 기술구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래밍과 소프트웨어 개발이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습한 지하 주차장. 그곳에 둥지를 튼 연구팀은 학부학생 위주로 팀을 꾸렸다. 사실상 학부학생이 주도한 유일한 팀이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첫 출전인 만큼 경험과 지식이 전무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지도교수 이영섭 교수의 생각은 달랐다.

"기존 연구 프로젝트 중에 차를 다루는 일이 많았어요. 생소한 센서라도 아 웃풋을 분석하고 프로그램 안에 반영시키는 일에 관해선 풍부한 경험이 있었 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이론은 다루고 있었기에 오히려 소프트 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테스트 공간이 마땅치 않다 는 난관에 봉착했지만, 다행히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 부지를 제공해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호기심에 발을 들여놓았지 만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프로그래밍 벽에 부딪혀 포기하는 팀원들이 나오 는 상황이 벌어졌다. 자신도 어려운데 팀원도 챙겨야 했던 이민호 팀장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었다.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점을 주는 것도 아닌 작업에 서, 학업과 병행하는 팀원들의 피로감이 상당했어요. 때때로 저도 포기하고 싶 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서로 격려하고 일을 나누는 데 서툴렀는데, 힘든 과정 을 거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서로를 믿고 가는 수밖에 없었다. 연구실에 서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검증하고 하드웨어를 손보며 차량을 정비, 마침내 테스트 부지에 나가서 실제 알고리즘 테스트에 돌입했다. 테스트 시간은 주로 야간, 새벽, 주말 등 번잡하지 않은 시간을 활용해야 했다. 문제가 발견되면 프 로그램 이전 단계에서 재확인을 거쳐 다시 수정하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예선 을 무사통과 했고, 이제 본선대회가 남았다.

####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첫 출전, 3위 차지

국내 최대 규모로 펼쳐진 본선 대회는 '자율 주행 안정성 및 스피드 경쟁'으로 순위를 종합하는 방식. 첫 출전인 만큼, 우리대학 자율주행팀의 목표는 순위보다는 성공적인 완주였다. 스타트라인에 선 자율주행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장이 요동쳤다. 출전팀 가운데 장애물 앞에서 멈춰서거나 피하다가 경기장 펜스를 들이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 팀장의 눈에는 아직도 그 날이 생생하다. "저는 대회 규정상 Safety Car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었는데, 총 두 바퀴를 도는 경기에서 첫 바퀴를 안전하게 주행하는 우리 차를 확인하며 환호성을 질렀죠. 완주했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교수님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른 팀에게는 오랜 시간 누적된 노하우가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차곡차곡 경험과 실력을 쌓으며 단시간에 성공을 거둔 것이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아 기쁩니다. 제가 한 단계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고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자율주행팀 유석훈 학생의 말처럼 열정 적인 도전은 '성장'이라는 달콤한 결실 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또 다른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이영섭 교 수는 이번 도전의 성과를 기반으로 자 율주행에 필요한 기술 개발, 그 흐름을 읽는 기술 개발, 또 자동차 업계가 요구 하는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 정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연구팀의 시 작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망설 임과 두려움이었으나, 그 열정적인 도 전의 끝에는 어떤 어려움도 결코 걸림 돌이 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 기초과학연구소로서는 유일하게 사업 수주

올해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는 전국 53개 대학연구소가 지원, 열띤 접전 끝에 최종 7개의 연구소가 선정됐다. 그중에서 기초과학연구소는 우리대학뿐이라 더욱 더 의미가 깊었다.

"개인과제로가 아닌 집단과제로서 선정되었다는 것도 괄목할 만한 대목이죠. 화학·물리·해양 분야 교수 7명이 의기투합하여 융합/특성 화연구팀을 결성, 불과 반년 만에 일구어낸 성과이니까요. 우리대학 이공계에서도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기초과학연구소장직을 맡고 있는 화학과 김태현 교수의 표정에 자부 심이 역력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를 통해 기초과학연구소의 융합/ 특성화연구팀은 5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향후 9년간 지원받을 수 있 게 됐기 때문이다.

"블루카본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원천소재들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해양자원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리사이클링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 과제 목표이죠."

블루카본 바이오매스를 소재로 과제를 기획한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다. 지상 최대 화두라고 해도 과언 아닌 환경&에너지 분야에 서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적인 특색까지 접목했을 경우 블루카본 바이오매스만큼 매력적인 아이템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까닭이다. 더군다나우리대학의 기초과학연구소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역량을 갖추고 있으니, 그야말로 도전해볼 만한 과제였다.

"그리하여 작년 12월부터 장장 5~6개월 동안 저를 비롯, 6명의 교수 진(해양학과 김승규·김연정·김장균·이재성 교수/물리학과 김병훈 교수/화학과 임태은 교수)이 매주 만나 밤샘 작업했죠. 각자 스케줄 을 끝마치고 모일 수 있는 시간대가 저녁이라 아이디어 회의하다 보 면 어언 간에 동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고된 일정의 연속. 그럼에도 과제기획 내내 행복했다 말한다는 융합/특성화연구팀. 과연 팀워크의 자양분이 무엇이었을까? "식지 않는 열정이죠. 저희 교수진의 평균연령대가 40대 초반이거든요. 가장 왕성하게 연구하는 나잇대죠. 이와 같은 점도 지원사업 선정 기준에서 큰 메리트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년간의 장기프로젝트이니 만큼 과제수행중에 연구진의 발전 가능성이 얼마만큼 되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요소였을 테니까요." 김태현 기초과학연구소장은 학교의 전폭적 지원도 사업의 수주에 한몫을 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Mini Interview



####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의 혁신적인 가치 발굴

그렇다면, 기초과학연구소 융합/특성화연구팀이 구축시켜 나갈 '블 루카본 바이오매스 리사이클링 플랫폼'은 대체 무엇인가?

우선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에 대해 면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블루카본 바이오매스란 대기 및 해양 내의 이산화탄소(CO₂)를 에 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해양생물로서, 그 잠재력이 무한하다. 식용으론 말할 것도 없고 뷰티‧헬스 케어‧줄기세포담체 등의 웰니스(Wellness) 산업 소재와 리튬이차전지 같은 에너지 저장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융합/특성화연구팀의 설명이다. 게다가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력은 육상생태계에 비해 무려 50배가량이나높다. 융합/특성화연구팀은 이에 착안, 블루카본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여러 종의 신소재를 개발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플랫폼을 구축키로 한 것이었다.

"일단 CO<sub>2</sub> 분리막이라는 것을 공장굴뚝에다 설치하여 대기오염 및 온난화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만 선택·포집, 고순도의 이산화탄소 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를 해양생물들에 공급해서 블루 카본 바이오매스를 대량으로 양식하고 블루카본 바이오매스를 원 천 소재 개발 등에 다양하게 활용토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흥 미로운 점은 CO<sub>2</sub> 분리막도 블루카본으로부터 재생산될 환경소재라 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리사이클링 플랫폼은 미래주요산업(환경+웰니스+에너지) 발전뿐 아니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까지 꾀할 수 있는 차세대형 복합재생설비이 다. 이와 같은 아이템은 세계 역사상으로도 유례없는 것이라서 관련 업계 및 학계 기대감도 상당하다. "ZERO-WASTE 블루카본 리사이 클링의 모델화가 세계 최초이니 만큼,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파 급효과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도 인 천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전문 일자리도 많이 생기리라 보고 있습 니다. 실제 저희 연구진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기업맞춤인재 프로젝 트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수행 중에 축적되 는 연구 데이터를 국제규격화(ISO)해 세계 블루카본 연구진의 길잡 이가 돼줄 것입니다." 이번 연구 통해 한반도를 넘어 세계 기초과학 계의 구심으로 우뚝 서겠다는 융합/특성화연구팀. 그 굳은 의지에 열렬한 박수를 보낸다.

**Mini Interview** 

Q.

A.



**김 태 현** 기초과학연구소장

우리대학 기초과학연구소의 특·장점에 대해 말씀하여주세요.

대형 프로젝트를 앞둔 기초과학연구소장으로서의 포부

향후 9년간 함께하게 될 연구팀에 하고 싶은 말씀 최고의 연구역량을 자랑하는 교수진인 터라 달리 걱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한배 타고 항해해야 하는 운명공동체란 점만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요?(웃음) 다만 우리 학생연구진에 당부하고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하였듯 실수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전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실수나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서로 협력하여 크게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단 점이 최고 장

점이죠. 교수진의 평균연령대가 40대 초반으로 젊은 덕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기초과학보단 실용과학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실정이죠. 이는 뿌리 없는 나무에다 물을 주는 격입니다. 실용

과학 뿌리 또한, 기초과학이기 때문이죠. 이번 사업 통해 국내 기초

과학계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 위에 열매 맺힐 리는 만무하니까요!

모두 오픈마인드에 배려심도 깊으셔서 좋은 결실을 맺은 듯합니다.



다짐 한마디!

평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고분자에 관해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구를 지도해주시던 김태현 교수님의 제안으로 사업에 참 가하게 됐습니다. 졸업까지 반 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저의 노력 들로 꼭 우리대학이 값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국주 화학과 석사과정 16학번



동기와 포부!

'이산화탄소 기체분리막'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던 중 마침 이번 사업에 기체분리막 연구과정이 포함된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또 평소 믿고 따르는 김태현 소장님이 연구소장으로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과제의 취지처럼, 해양생물을 이용한 효율적인 기체분리막을 개발해 우리대학의 위상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혜림 화학과 석사과정 15학번



# 45개국이 하나가 된 시간 글로벌 대학을 향한 힘찬 비상

[ 외국인 유학생 국기게양식 ]

edit 유서진

지난 5월, 우리대학 캠퍼스에서는 그 어디서도 본 적 없던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우리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유학생을 파견한 45개국의 국기 게양 행사가 열린 것이다. 타국 땅에서 조국 국기를 보던 유학생들은 가슴 속에 벅찬 감동을 새겼다. 그리고 오늘의 감격은 세계 속에서 우리대학의 이름을 널리 휘날릴 수 있는 자부심이 되었다.

본관 앞,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곳에는 머나 먼 타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데 모여 한껏 설레는 얼굴을 하고있었다. 바로 우리대학에서 수학 중인 45 개국 외국인 유학생들의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행사가 열렸기 때문이다.

우리대학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모국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자매대학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대학의 글로벌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 날 행사에는 조동성 총장을 비롯한 외국인 유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먼저 조동성 총장의 인사말로 행사가 시작됐다. 조동성 총장은 유학생들을 향해 "오늘은 우리 인천대학교가 글로벌 대학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모든 기관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도 각 나라만의 전통이라는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가치는 두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국기, 하나는 국가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요한행사가 있을 때마다 국가를 연주하고 국기를 게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대학은 세계적인 대학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세웠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의 국가를 중요하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유학생들의 모국 국기를 게양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가치를 널리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모국의 대표자이자 세계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라며, 모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우리대학 속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격려의말을 전했다. 이어 외국인 유학생 대표로 나선 스페인 학생 곤잘레스팔마 후안은 "한국에 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말라가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왔습니다. 유학하던 중 한국, 그리고인천대가 너무 좋아졌고 졸업 후 다시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며인천대와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국기 게양식 행사의 스페인 대표로서 참여하게 돼 아주 자랑스럽고 잊지 못할 즐거운시간이 되었습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기 게양식은 해당 국가 유학생 및 자매대학 대표들이 직접 한 명씩 국기를 게양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유학생들은 드높이 올라가는 자 국의 국기를 바라보며 벅차면서도 뭉클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계양식을 마친 후 유학생들은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다른 재학생들과 친목을 도모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조동성 총장은 "우리 인천대 는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대학입니다. 따라서 우리대학에서 공부하 는 모든 학생이 인천대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인천대 교정에서 자국의 대표로서 다 양한 활동을 하고, 또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세계의 인재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유학생 인터뷰



#### 알리베트 베놀트 브루노 올리비에 영어영문학과 15학번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프랑스를 알릴 수 있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국립대 중에서도 손꼽히는 인천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 실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행사는 저에게 잊어 잊지 못할 경 험이 될 것 같습니다.



#### **야마자키 미우** 동보아통상한부 익본통상 15한번



안녕하세요. 일본통상 전공 야마자키 미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 나라의 학생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지아 즈웨이** 체육교육학과 15학번



머나먼 타국에서 중국을 대표해 국기를 게양하게 돼 매우 영광스 럽습니다. 국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뭉클함을 느꼈고 큰 책임 감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싸트리아노 마리나 페데리카** 정치외교학과 15학번



오늘 이탈리아를 대표해 국기 게양식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기 쁘고, 인천대학교에서의 이번 학기 생활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 니다.



#### **무하매드 하니프 빈 엠디 누르** 경영학부 15학번



말레이시아인으로서 오늘 국기 게양식에 자원하여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만나고 또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 과를 말하다

# 혁신의 바이오경영, 세계 100대 대학의 꿈을 견인하다

[국내최초 및 유일의 바이오경영학과]

edit 유서진

올해 3월, 우리대학에 특별한 학과가 신설됐다. 바로 바이오경영학과다.

이 학과는 조동성 총장이 취임하며 강조한 '바이오 특화대학'의 꿈을 실현시킨 결과물 중 하나다. 바이오와 경영을 접목시켜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바이오경영학과. 홍기용 경영대학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기업맞춤형 현장중심 수업

차세대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바이오산업. 하지만 정작 생산과 연구를 담당할 숙련자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 그러던 중 대학들이 점차 추세에 발맞춰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학과를 신설하기 시작했고 우리대학도 그 행보에 동참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조동성 총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를 통한 세계 100대 대학진입'의 목표를 나침반 삼아 글로벌로 가는 문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대학 바이오경영학과는 성적에 맞춰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가장 큰 특징은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학과를 설치·운영한다는 점이다.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자가 등록금 50% 이상을 산업체 대표 명의로 지원받는 경우에만 입학이 가능하다. 타과와 입학형식이 다른 만큼 전과는 불가하

며 졸업 전 자의로 직장을 퇴사할 경우 학업을 이어 갈 수 없다. 이는 현장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학과의 목표와도 연결된다. 기업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에 특별 교과과정을 의뢰하고, 학과는 기업의 요구를 충실히 파악해 수업 커리큘럼에 반영한다. 때문에 재학생은 대학에서 기업이 원하는 맞춤식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더욱 발전된 역량으로 기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바이오경영학과에는 11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들은 송도국제도시 내에 입주해있는 셀트리온을 비롯한 6개의 기업

에서 찾아온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입학정원이 20명이지만 추후 더 많은 인원이 지원할 경우 그에 맞춰 정원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 ──바이오와 연계된 새로운 직업 창출도 가능

바이오경영학과라고 해서 바이오업계 종사자만 입학이 가능한 건 아니다. 바이오는 어느 직업에나 접목시킬 수 있어 배움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직업군에는 전부 바이오를 연결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화장품의 경우 크게 지성, 복합성, 건성, 예민성 정도로만 피부 타입을 나눠 제작한다. 하지만 바이오를 접목시키면 개인의 피부 타입을 분석해 오로지 나에게만 꼭 맞는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에어컨을 만들 때에도 사용자의 기초체온을 분석해 알아서 온도조절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 바로 바이오다.

실제로 국내 바이오회사에서는 이미 이러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방면에서 수요가 많은 장래가 유망한 학문으로 보여진다. 바이오경영학과는 단순히 바이오만 배우는 것이 아닌 '경영'까지 접목된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새로운 직군을 창출해내고 나아가 경영까지도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 ──경영대·생명과학대 교수의 전문적인 지도

기업

직원

(학생)

바이오

경영

바이오경영학과의 수업 커리큘럼은 디지털경영, 바이오마케팅조 사, 바이오투자론, 바이오벤처창업, 국제경영전략, 생명과학, 바이 오의약품, 바이오국제협상 등 핵심교과와 산업체 맞춤교과로 나눠 진다. 배움의 범위가 넓은 만큼 경영대학과 생명과학기술대학 등

> 여러 단과대학 교수들이 직접 강의를 하기 때문에 타과 학생들보다 더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장감 있는 교 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부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초빙, 강의도 실시하며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수업 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강의를 듣는 재학 생들의 만족도도 아주 높은 편이다. 장학금 지원책 도 현재는 타과와 동일하게 교내장학금, 교외장학 금, 보훈장학금, 국가장학금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 더욱 꾸준하게 지원 폭을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 홍기용 학장은 이렇게 말한다. "성적에 맞춘 전공.

그리고 전공에 맞춘 취업만으로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다가 훗날 바이오경 영학과에 와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바이오를 접목시켜 더 깊게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창업을 한다면 고용 창출의 선순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홍기용 학장은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원하든 원치 않았든 살아가며 한 두 번의 퇴직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흐르는 대로만 살아가면 미래에 대응할 수가 없다.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 산업에 필요한 바이오경영이 반드시 요구된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말이다.

바이오경영학과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 지금 막막한 미래에 고민 중인 사람이 있다면 인천대를 믿고 도전해보길 바란다.

# 캠퍼스 이모저모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우리대학,
그리고 학우들은 열정적인 여름을
보내고 있는듯하다.
전국사격대회 다관왕부터
창업경진대회 대상, 경찰서 표창까지.
이번호에서는 유독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소식이 들려온다.
이뿐이 아니다. 조형예술학부 학생들이
그려놓은 아름다운 그림 덕분에
익숙하기만 하던 캠퍼스가
새 얼굴로 다시 태어났다.
학생들이 잠시 떠났던 여름방학,
과연 우리대학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 수상소식

#### 송민호 학우, 제33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 남자대학부 소총 2관왕

우리대학 송민호 학우가 지난 6월 4일 대구사격장에서 열린 '제33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 남자대학부 50m 소총3자세에서 445.5점을 명중시키며 2관왕에 올랐다.

또한 단체전에서도 김경수, 이건국과 함께 출전해 3,419점을 기록하며 한체대(3,409점)와 경남대(3,328)를 제치고 금메달 2개를 획득했다. 이어 남대부 50m 소총복사 단체전에서도 소총3자세 우승 멤버가 출전해 1,816.5점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 이건국 학우 '제29회 대학연맹기 전국 대학생 사격대회' 남자부서 3관왕

이건국 학우가 '제29회 대학연맹기 전국 대학생 사격대회' 남자부에서 3관왕에 올랐다. 이건국 학우는 7월 6일 대구종합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3일째 남자부 50m 소총3자세 개인 전 결선에서 446.3점을 명중시키며 동국대를 따돌리고 금빛총성을 울렸다. 또 단체전에서 도 송민호, 유승석 학우와 함께 출전해 3,424점을 마크, 한체대(3,418점)와 우석대(3,404 점)를 제치고 우승했다. 이로써 이건국은 전날 50m 소총복사 단체전 우승을 포함 3개 금메 달을 거머쥐며 우리대학의 위상을 드높였다.

#### 여자테니스부, 전국 하계대학 테니스연맹전 우승

우리대학이 지난 7월 10일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제33회 전국하계대학테니스연맹전 학년별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휩쓸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대학은 여자 학년별(개인전) 단·복식 결승전에서 무려 5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며 테니스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1학년 박상봉, 3학년 윤소희, 4학년 권미정 학우가 학년별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대회 1번 시드 박상봉은 여자 1학년 단식 결승전에서 우가현(영산대)을 세트점수 2대 0(6-36-2)으로 꺾었다. 윤소희는 3학년 결승전에서 이우경(충남대)에게 기권승(6-23-0 Ret.)을 거뒀다. 학년별 복식에서도 공효진·박상봉(1학년), 권미정·윤수진(4학년)이 각각 우승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권미정·윤수진은 4학년 결승전에서 김인정(충북대)·이지혜(강릉원주대)를 세트점수 2대 0(6-16-2)으로 완파하고 대회 2관왕에 올랐다. 특히, 2014년 권미정·윤수진 조는 이 대회에서 4년 연속 복식우승을 차지하는 위업을 이뤘다.

#### 여자배드민턴부 '2017 화순 배드민턴선수권대회'서 전 종목 우승

우리대학 여자 배드민턴부가 지난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린 '2017 화순 전국 초·중·고·대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참가해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바로 여자대학부 단식·복식 결승에서 김주은, 윤태경-이승희 조가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우리대학은 단체전에 이어 개인단식과 복식 우승까지 모두 휩쓸며 여자부 전 종목을 석권하는 영예를 안았다. 단식 결승에 오른 김주은이 군산대 김설화를 2-0으로 가볍게 제압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이번 대회에서 김주은은 단한 번도 3세트 경기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기량을 펼치며 최강자의 자리를 지켰다. 복식 결승에서는 윤태경과 이승희가 조선대를 2-0으로 꺾었다. 4학년인 윤태경은 올해 출전하는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 수상소식



#### 산업경영공학과, 솔루션 경진대회 대상

우리대학 산업경영공학과 학생팀(SE-서주혁·김태완·정하성·김도원) 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일자리 창출 기여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솔루션 경진대회'에서 대상을수상했다. SE팀은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디엔피유의 라이트 글러브 LED 장착에 따른 장점과 강점을 비교하고 손가락의 사용 횟수, 접근법 등으로 사업화 및 기술경쟁력을 갖춘 아이디어를 제시해 대상의영광을 안았다. 각 수상자에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 상장과부상으로 상금 300만원이 주어지며,희망할경우수상 아이템 제출기업의 인턴으로 우선 채용되고 기업에게는 최고 1,500만원의 시제품제작지원비 및 청년 인턴십비용을 지원한다.

#### '2017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서 장려상



기계공학과가 지난 5월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열린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대회에는 국내외 39개 대학에서 64개 팀(외국팀 3개)이 참가해 직접만든 창작자동차 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전기자동차와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에 자율자동차 부문이 신설돼 10개 대학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대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자율자동차,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자율자동차 부문은 횡단보도 일시정지, 협로차선인식, 동적 및 정적 장애물 인식·회피 주행, U턴 주행 등 7개의 미션을 부과해 참가팀의 창의적 알고리즘과 자율주행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능력을 평가했다. 또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주행성능과 조향 및 제동안전, 가속성능, 창작기술부문 등을 평가했다.

#### 디자인학부 SK청년비상 창업경진대회 대상



디자인학부 김진웅(12학번) 학우가 활동하고 있는 ㈜애드포라이프 팀이 우리대학에서 열린 2017년 1차 SK청년비상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총장상과 상금 1백만 원을 수상했다.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총 17개 팀이 참가하여 5개 팀을 선정하였고 대상과 최우수상에게는 향후 전국 'SK 청년비상 캠프'에 진출한 자격이 주어지며, 창업지원금 및 SK Biz 연계지원 등 창업에 관련된 지원을 받게 된다.

㈜애드포라이프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미션으로 어플리케이션·키오스 크 기부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육성 사업·6개월챌린지 플랫폼 등 정부지원사업에 다수 선정되며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전경희) 지원 아래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JST(제물포스마트타운)에 입주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지역 지하철에 키오스크 배치를 준비 중이다.

캠퍼스 소식 ----





#### 조형예술학부 학우들, 교내 벽화 그리기 재능기부

조형예술학부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복지회관 환경개선 사업의 일 환인 벽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후 선정된 벽화 시안을 바탕으로 학생 및 지도교수가 함께한 재능기부 벽화를 제작하였다. 공모에 당선된 팀은 조형예술학부 4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아이디 어 뱅크시(김수아·허수빈·백소연·이지웅)'팀이며 제작 지도교수



#### 핀란드 국회 교문위원 송도캠퍼스 방문

지난 5월 30일, 우리대학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바로 핀란드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투오모 푸말라 위원장과 산나 라우 스라흐띠 부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소속 국회위원, 에로 수오미 넨 주한 핀란드대사 등이다.

핀란드 교문위원은 한국의 고등교육을 벤치마킹하고, 한국의 R&D 자금조달 관련 현황을 청취했다. 조동성 총장은 우리대학과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하였으며, 이찬근 부총장, 옥우석 기획예산처장, 김영관 연구산학처장도 한국대학의 고등교육, 대학의 발전과제, 한국 R&D 자금조달 등에 관한 발표를 하며 핀란드위원들과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는 조형예술학부 한효석 교수가 담당했다. 벽화는 다섯 명의 학생이 손에 손을 잡고 힘을 모아 커튼을 열고 있는 모습으로, 열린 커튼 사이 로 바다 너머 우뚝 서있는 우리대학이 보인다.

변화 내용은 학생들이 힘을 합치면 새로운 세상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시안을 제작하였다. 제작 방식은 아연 판 위에 착색을 위한 바탕작업을 거친 후 고강도 페인트로 도색을 하였다. 벽화를 좀더 현대적인 느낌으로 표현하기 위해 스텐실 기법으로 채색하였고, 야외 벽화인 단점을 고려해 보존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제작은 2주간 진행됐으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효석 교수를 비롯한 4명의학우가 모교를 위한 마음 하나로 뜨거운 열정을 벽화제작에 쏟아 부었다. 벽화 제작에 참여한 학생들은 "칭찬 받기 위해 한 일이 아니다. 우리대학의 가족으로서 학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 2017 정주대학 프로그램 실시

지난 6월 26일 우리대학 컨벤션센터에서 재학생 66명과 함께 '2017년도 1학기 정주대학 프로그램' 개강식을 가졌다. 정주대학 프로그램은 2014년 교육부 수도권특성화사업에 선정돼 시작된 프로그램으로학생들의 거주공간인 기숙사를 생활교육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주간학습 및 융합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참여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지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원어민 교수들과 외국어(영어/중국어) 몰입교육 및 그룹 프로젝트 활동(1:1 외국어지도)을 진행했다. 비외국어 교육으로 자기역량향상 워크숍, 취업역량향상 캠프, 외국어학습법, 진로 설계, 인성리더십 등의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프로그램은 7월 7일을 마지막으로 종강했으며, 수도 권특성화사업이 종료되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 경인지역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 개최



지난 6월 21일, 우리대학에서 경 인지역 32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 된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총회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 는 경인지역 협업대학 체제 구축 을 위한 MOU 체결과 실무추진

단 구성, 협업을 위한 공동회 개최 등 대학의 공동 활용을 통한 고등교육의 시너 지 확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총회에는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이 참석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경인지 역 대학의 대응협력 필요성에 대해 연설했다.

이 자리에서 총장들은 "경인지역 대학 여건이 지방대학보다 나은 게 없는데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서울대학들과 경쟁해야 한다. 또 지방대학육성법에 따라 수도권으로 묶여 학생들이 취업에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 경인권학생 인구는 증가하고 서울권은 감소하는데, 입학정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경인지역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경인권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을 배제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조동성 총장 역시 "국내 대학 간 복수 학위를 수여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수여가 가능하게 됐다. 다른 지역보다 경인지역이 한발 앞서 하나의 연합체가되어 교육, 연구, 취·창업 인프라 분야에서 협업이 가능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말했다.

### '미래도시의 탐색형 창의교육 사업단' 하계 국제교육 프로그램 실시

우리대학 '미래도시의 탐색형 창의교육 사업단'이 하계방학을 맞아 러시아와 미국, 태국 등 3개국에 서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는 28명의 학생과 5명의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지 난 7월 11일 교수회관에서 열린 발대식에서는 조 동성 총장의 축사를 비롯해 사업단 주요 프로그램 을 소개했으며, 대표학생 선서, 단체사진 촬영 등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하계방학 국제교육 프로그 램은 해외 유수의 대학 및 기관, 건축물, 건설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고 현지 전문가 및 학생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폭 넓은 전문 지식 습득 기회 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단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 업 중 하나이다. 하계방학 국제교육 프로그램은 7 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러시아 시베리 아 지역의 도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연구(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실리콘밸리 건축 스터디 투어(미 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지속가능도시 워크샵(태 국 방콕) 등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2017 중남미 대학생 초청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개최

우리대학 국제교류원이 지난 7월 4일 중남미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한 달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은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 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브라질,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등 9개 중남미 국가에서 20명의 대학생을 초청하고 한 달간 우리대학에 머물며 한국기업문화 체험 기회를 부여했다. 우리대학을 찾은 중남미 학생들은 국제관계학, 국제경영학, 교육학, 언어학 등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로 구성됐으며, 체류기간 중 국제리더십 특강을 비롯해 삼성전자, CJ E&M등 대기업과 한국국 제협력단(KOICA)을 탐방, 한국기업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했다.

국제교류원 질 타오 원장은 "우리대학을 찾은 중남미 대학생들은 한국 방문이 처음이다.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특강과 함께 기업체험을 통해 한국과 중남미 국가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INU 뉴스

국내외 글로벌 석학 5명 영입, 바이오 연구중심대학 도약



우리대학은 바이오 연구중 심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내외 글로벌 석학 5명의 영입을 결정했다. 조동성 총 장은 지난 7월 10일 인천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 리에서 "인천대를 세계 수 준의 바이오 연구중심대학 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성호 UC 버클리대 명예교수를 석 좌교수로 영입해 융합과학

기술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초빙하는 글로벌 석학 5명은 전원 외국인으로 이 중 2명은 한국계 미국 인, 1명은 인도계 미국인, 2명은 유럽인이다. 김성호 교수와 이민섭 박사가 한국계 미국인이며, 1999년 노벨평화 상을 수상한 '국경없는 의사회' 대표를 역임한 우니 카루나카라(Unni Karnakara) 예일대 연구교수는 인도계 미국 인이다. 다국적제약회사인 GSK, Novartis, Takeda의 부사장을 역임하고 UN산하 국제백신연구소 과학자문위원 장과 빌게이츠재단 수석고문을 맡고 있는 랄프 클레멘스(Ralf Clemens) 교수는 독일인이고,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원 출신으로 네델란드 빈데샤임대학교 총장과 위트레흐트대학교 생명대 학장을 역임한 알버트 코넬리슨(Albert Cornelissen) 교수는 네델란드인이다. 김성호 교수는 리보핵산(tRNA)의 3차원 구조를 세계 최초로 구명해 생체 고분자 결정구조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로 호암상을 수상한 인재로, '한국인으로서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과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대학은 김성호 교수의 융합과학기술원 원장 취임을 계기로 바이오 분야에서 연구 및 클러스터 중심, 국내 및 국제 대학간·연구소간 협력연구 중심, 기업과의 협업 연구 플랫폼, 바이오 융합 연계 전공 특화대학을 지향하며 연구프로젝트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노벨상에 도전하는 연구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동성 총장은 "1차로 5명의 글로벌 석학을 영입한데 이어 앞으로도 세계 수준의 연구자들을 충원해 우리대학이 한국과 세계 바이오 연구와 산업을 잇는 글로벌 R&D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창업지원단, 2017 스포츠산업창업 지원센터 사업 선정 우리대학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이 지원하는 '2017 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사업'에 선정되었다. 최대 3년간 국비 5억 4천만 원이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국내 스포츠산업을 이끌어갈 기술창업자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전국 6개 대학을 지역거점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창업지원단(단장 정영식)은 이번 사업수행을 위해 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센터장에 체육학부 홍진배 교수(체육진흥원장)를 총괄책임자로 선임하여 인천지역과 수도권의 스포츠산업 기반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교육과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영식 창업지원단장은 "세계적으로 스포츠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 만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과 창업지원 인프라는 부족하여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을 주도할 우수기업 육성에 적극 노력 하고, 창업지원기관 네트워크와 대학 내 산학협력을 통해 스포츠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INU 뉴스

### 우리대학,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 선정

우리대학이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신규선정대학은 우리대학을 포함한 강릉원주대, 우석대, 대구교대, 청주교대, 한남대 등 수도권 1개와 지방 5개로 모두 6개 대학이다. 계속지원대학은 서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수도권 27개 대학과 경북대, 충북대, 포항공대 등 지방 29개 대학이다. 또 지난해 지원을 받은 59개 대학들은 2016년 사업 운영실적, 대입전형 운영현황 등을 위주로 중간평가를 받아 재선정평가 대상 대학 9개교를 선정, 이 중 고려대와 연세대, 충남대, 군산대, 대진대, 한국교원대 등 6개 대학이 재선정됐다. 올해 지원 예산은 유형 I의 경우 대학별 2017년 채용사정관 수(채용계획 기준), 대학 규모 및 신분안정 등에 따라 평가순위를 통해 가감해 선정했으며, 유형 II는 2~5억 원 이내에서 대학규모 및 평가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우리대학-지멘스(주), 친환경 스마트 캠퍼스구 축 업무협약

우리대학과 지멘스㈜는 지난 6월 16일 '친환경 스마트 캠퍼 스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멘스의 특허기술인 냉방플랜트 최적제어 솔루션 (Demand Flow) 등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최고의 빌딩자동화 기술과 노하우를 적용하여 스마트 캠퍼스 완성을목표로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대학은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및 전력 수급 안정화 실현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업무협약

지난 6월 20일 우리대학 통일후통합연구원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상호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차원의 통일 대비 매뉴얼을 구축하는데 협동하고 통일이 된 후 혼란을 최소화, 다양한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두 연구원은 인적 자원을 교류하는 한편 정책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할방침이다. 또 국내 통일관련 우수연구소와 교류를 확대하고 정보를 수집해 오는 8월에 공동회의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 세종연구소와 통일연구 업무협약 체결

우리대학이 7월 12일에 영상회의실에서 세종연구소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대학과 세종연구소는 인적 교류 및 정책연구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역점사업인 '통일후 통합연구'를 추진하고 선도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창출하기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약속했다.



# 언제나 함께 걷는 **든든한 동행 파트너**

졸업 후 가벼운 마음으로 들게 된 동문회. 하지만 이제는 그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 누구보다 큰 애정으로 우리대학을 위해 함께 뛰는 동문회.

그리고 그 뒤에는 김광오 회장이 곁을 지킨다.

그의 남다른 인천대 사랑을 INU가 직접 들어보았다.

edit 신경화 photograph 이덕재

14년 지기 친구, 나의 인천대학교

김광오 동문은 2010년 동문회 운영위원 으로 활동하다 학교 발전에 더 기여하고 싶다는 소명의식으로 우리대학 16대 동

문회장직을 맡고 있다. "산업공학과 85학번으로 입학해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 무려 7년을 다녔네요. 졸업 후에도 동문회에서 7년 넘게 활동했 으니 학교와 인연을 맺은 지 어느덧 14년입니다. 우리대학을 빼고 제 삶 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14년 지기 친구 같은 존재로 삶의 일부분이나 마찬가지죠."

무릇 친구라면 그렇듯이 심한 다툼도 있었다. 그 옛날 사학 비리로 몸살을 앓던 대학들, 그중 하나였던 우리대학에 입학한 김 회장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학원 민주화를 외쳤다. 학내 구성원의 힘으로 시립대로, 또다시 국립대로 변화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그 누구보다 모교에 대한 자부심도 강해졌다.

"졸업 후에 가벼운 마음으로 동문회 운영위원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동문회 상황을 조금 알게 되니 취약점을 파악하게 되었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것이 산악회를 조직하는 계기가 되었고 매주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학교 얘기 등을 하며 산행을 했습니다. 2년 여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죠. 즐겁기 때문에 힘든지 몰랐어요."

숱한 동문들이 김 회장을 추천하고 지지했던 이유는 꾸준하게, 또 웃으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지 않았나 싶다.

발전적 변화를 견인하는 동문회로 거듭날 것 김 회장은 취임 후 동문 네트워크 기반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동문 기업 현장 탐방을 통해 졸업생을 발

굴하는 한편, 동문회가 가교역할을 자처해 기업의 판로도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산악회나 동문 축구단, 배드민턴단 등의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길게는 동문회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재학생들과 동문기업을 매칭하는 동문기업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하는 것이 선배의 도리가 아닐까요. 학교 당국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인천대인에게는 특별한 DNA가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지향하는 신념이다. 동 문회 발(發) 발전적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 동문소식



정명훈 동문, 안전보건 교육훈련 경진대회서 노동부장관상 수상 7월 4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11회 안전보건교육훈련 경진대회'에

서 정명훈 동문(안전 91, 대우건설)이 대상인 노동부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수상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안전보건교육훈련 경진대회는 전국 사업장과 안전보건 단체의 교육수준 항상을 위해 개최하는 대회로, 지난 5월 8일부터 공모신청을 받아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친 6명이 열띤 경쟁을 벌였다. 교육원은 이번 발표대회 우수작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사업장 안전보건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찬배 동문, '보이지 않는 도시들' 사진전 개최

지난 7월, 인천 동구 스페이스빔에서 박찬배 동문의 사진전 '보이지 않는 도시들'이 열렸다. 이번 사진전은 그가 살고 있는 도시의 방치된 공간을 탐색해 사진으로 기록한 프로젝트로, 도시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요소는 낮보다 밤에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에 착안한 작업이다. 그는 거주지 인근부터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모습을찾아내 사진으로 기록한 뒤, 비현실적인 색감으로 이미지를 조작해 낮설고 초현실적인 도시풍경으로 표현하는 작업 방식을 택했다.

박찬배 동문은 "전시회를 통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우리가 사는 환경이 왜 이렇게 파괴되고 피폐한 현상들이 생겼는지에 대해 예술 가로서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2017년 총동문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6월 11일, 2017년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동문과 동문 가족이 함께한 이번 정기총회는 예년과 달리 평일이 아닌 일요일에 열렸다. 작년 결산 (사업 및 회계 감사보고) 및 2017년도 사업계획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김광오 총동문회장을 비롯하여 심상준 고문, 정수영 고문, 권동수 수석부회장, 이정근부회장, 이범홍 부회장, 서해용 토목공학과 총동문회장, 이범홍 부회장, 서해용 토목공학과 총동문회장, 강태귀 기계과 총동문회장, 이명철 전자과 총동문회장, 김용식 교수,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 등 많은 동문 선후배들이 참석하여 이날 행사를 빛 내주었다.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서 모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고취하고 모교의 힘찬 도약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동문의 힘을 모아 보탤 것을 결의하였다.

제물포캠퍼스서 매주 토요일 동문배드민턴 모임 지난 6월 10일부터 제물포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동 문배드민턴 모임이 진행되었다. 동문 배드민턴 모임 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제물포캠퍼스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 총동문회 소래산 가족등반대회 실시

6월 11일 일요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소래산에서 우리대학 총동문회 가족등반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 사에는 동문이자 현재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용식 교수와 김광오 총동문회장과 동문 및 가족이 함께 참 여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동문 간 협력과 총동문회의 발전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선후배가 함께 하는 훈훈한 시간이 되었다. 등반에 참여한 동문들은 "서로 소통하며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좋은 시간이었 다. 오늘 만든 뜻깊은 시간을 계기로 더 끈끈한 동문 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자주 있 었음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 제48회 전국대학축구연맹전 우승 기원 석찬회

지난 6월 3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제48회 전국추계 대학축구연맹전 우승 기원 석찬회'를 개최하였다. 이 번 자리는 모교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김광오 총 동문회장의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총동문회장은 우승 후 축배를 들라는 의미로 와인을 전달하였다. 이날 자 리에는 한기성(체육 83) 이사도 함께하였다.

#### 제1회 기계공학과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지난 5월 22일, 송도캠퍼스 흙운동장에서 '제1회 기계공학과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기계공학과 선후배 및 학과 교수님들이 함께 어우려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함께 즐기는 뜻 깊은 소통의 장이 되었다. 또 김광오 총동문회장도 함께 자리를 빛내 "기계공학과는 모교 설립부터 함께해 온학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 앞으로도 선후배 및 교수님들의 끈끈한 관계를 쌓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 행정학과 동문체육대회 성료

지난 5월 27일, 행정학과 동문 체육대회가 송도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오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많은 행정학과 동문회가 참여했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100여 명이 넘는 선후배가 모여 끈끈한 관계를 도모했고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지 않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참석한 동문들은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며 과거를 회상했고 준비한음식과 프로그램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인천대**를 이끄는 힘 예술인들의 **아름다운 기부**

조형예술학부 '국립인천대학교 송도시대 발전기금展' 성료

edit 유서진

지난 5월 30일부터 나흘 간 우리대학 교수회관 1층 'ART SPACE IN'에서 대학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국립인천대학교 송도시대 발전기금展'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조형예술학부의 주도로 시작됐으며, 교수와 교직원, 동문, 재학생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바쁜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 그 의미를 더했다.

#### 기부와 문화체험 '1석2조' 효과

행사의 밑그림은 조형예술학부 우종택 학부 장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그려졌다. 어느덧 조형예술학부가 33회째 졸업생을 배출해내 고 있지만 그동안 학과 차원에서 발전기금을 만들 수 있는 행사가 전무후무했고 다른 과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현실에 안타까 움을 느낀 우 학부장이 고민을 시작했다. 우 리들이 가진 재능으로 학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들엔 무엇이 있을까. 또한 타 학과 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생각 해낸 것이 미술 전시회였다. 국내 국립대학은 거의 다 미술관과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대학은 아쉽게도 아직 이런 시설물을 갖 추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우 학장은 이번 전 시를 통해 발전기금도 기부할 수 있고, 학업 과 취업 준비로 바쁜 재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미술관의 역할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다.

동료 교수들과 교직원, 동문,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다.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하겠다며 하나 둘 힘을 보탰고, 마침내 지난 5월 모두의 염원이 담긴 전시회가 무사히 개최했다.

#### 모두가 함께 만든 희망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처음 열리는 행사인지라 미흡했던 홍보가 다소 아쉬웠지만 그래도 많은 구성원이 '학교 발전'이라는 하나의 뜻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것만으로 성과는 충분했다.

현장에서는 관람 외에도 작품 판매가 함께 이루어졌다. 평소라면 더욱 값비싸게 팔렸을 작품들이지만 좋은 취지로 열린 행사인 만큼 절반가 량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됐다.

전시회를 찾아온 조동성 총장도 "앞으로 이런 행사들이 더 많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응원의 말과 함께 작품을 구입하였다. 다른 구성원 역시 기쁜 마음으로 발전기금 기부에 동참했고, 그 결과 4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 전시회에서 560만 원가량의 소중한 기부금을 모 을 수 있었다.

#### 지속적인 문화축제로 발전

조형예술학부는 우종택 학부장은 이번 전시를 1회성 행사가 아 닌 더 큰 문화예술제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의 학생들은 전시나 공연을 보기 위해 인사동이나 대학로로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앞으로 열릴 기부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문화적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예술학부는 공연을 하며 티켓 판매수익을 기부하고, 디자인학과는 아트상품을 개발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형태로 말이죠. 각학과가 가진 성격과 재능을 잘 활용한다면 꽤 재밌는 문화행사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번 전시회는 행사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사람들의 메마른 감성까지 충전시켜 주었고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대학에서 송도시대 발전기금 전시회와 같 은 행사가 더욱 자주 열려 많은 사람들이 나눔의 행복을 알게 되 길 바라본다.



IN-United; 희망을 전하는 약속

공감 그리고 나눔

#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의 길**

# 함께 만드는 상생 **파트너**

Positive Thinker,
(주)에이텍 한가진 대표가
우리대학에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긍정의 철학에서 비롯된
그의 실천은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어졌다.

평소에도 나눔을 실천하며 누구나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부 인식을 바꾸는 데 힘쓰는 한가진 대표를 만나보았다.

edit 유서진



-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A. 저는 인천대 전자공학과 80학번 한가진입니다. LG전자에서 26년 간 근무했고 현재는 PC개발사 ㈜에이텍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 다. 본사 70여 명, 현장 60여 명 등 총 16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공공 ICT 분야에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Q. 우리대학에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해주셨는데요.
- A. 모교이기 때문에 늘 관심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우리대학 발전기금 기부 제도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르기 까지 받은 도움들을 조금이나마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흔쾌히 참여를 결심했습니다.
- Q. 기부가 부담스럽게 느껴진 적은 없었나요?
- A. 기부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순간 진정한 기부가 아닙니다. 현재 에이 텍은 4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많은 계열사를 만들고 다양한 고용을 창출해 봉사는 물론이며 사회적인 책임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부담을 느꼈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 Q.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기부란 무엇인가요?
- A. 기부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기부는 안 하느니 못하죠. 저희 회사는 매년 직원들과 연탄 나눔, 장애우 돌보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담감 없이 봉사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Q.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으면 하나요?
- A.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땐 인천대의 인지도나 사회적 입지가 높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따로 영어를 배우고 온갖 자격증을 따며 해외유학파나 명문대 출신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했죠. 우리 후배들은 졸업 전에 학교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에 기부금이 사용되면 더없이 좋을 것 같고요.

#### 모교 그리고 인생의 후배들에게 한마다.

1%의 차이가 삶을 바꿉니다. 51%을 선택하느냐 49%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게 되겠죠. 힘들고 피곤한 와중에도 영단어 하나 더 외우려는 작은 습관이 모이고 또 모이면 반드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결정의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마다 항상 51%를 선택하는 인천대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의 작은 움직임으로 변화될 인천대의 행복한 미래

#### 정보기술대학원 개원 20주년 기념 동문 약정회

edit 유서진

올해로 개원 20주년을 맞이한 우리대학 정보기술대학원에서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왔다. 그들은 기부에 대한 동문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켰고,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했다. 동문, 원우, 교직원 누구 하나 남 일이라 생각지 않고 발로 뛴 결과 교내에서는 첫 시도로 '개원 20주년 기념 동문 약정회'라는 뜻 깊은 행사를 열 수 있었다.



### 동문회, 원우회, 교학팀 모두가 함께 만든 우리의 행사

20돌을 맞은 정보기술대학원은 새로운 터닝포 인트가 필요했다.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해 학 교에 보탬이 되는 좋은 문화를 만들고 싶었다. 그러던 중 류제진 동문회장과 김대유 원우회장 이 취임하며 변화가 찾아왔다.

적극적인 성격의 두 사람이 대학발전기금 동문 약정 아이디어를 교학팀에 제안했고 교학팀 역 시 이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시작된 행사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 냈다. 동문들에게 행사 취지를 설명하며 참여 를 이끌고 기금을 모금했다. 또 감사패 준비와 식순 작성, 공연 준비 등 사소한 일부터 구성원 들이 직접 참여했다. 하지만 결코 힘들지 않았 다. 동문회와 원우회, 교학팀 모두가 주어진 역 할에 성실히 임하며 만들어낸 '우리 행사'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은 무려 1,300만 원. 성미영 정보대학원장과 60여 명의 많지 않은 동문이 참여했지만 그 정성만큼은 결코 작지 않았다.

처음 기획 땐 교학팀이 동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모든 동문이 참여하되 1만 원씩만 기부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했었다. 하지만 오히려 동문회와 원우회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며 더 큰 정성을 모아주었다.

#### 학생들에게 바라는 단 하나의 감정 '고마움'

6월 8일, 마침내 약정회가 열렸다. 조동성 총장을 비롯한 성미영 정보기술대학원장 과 최병조 정보기술대학원 부원장, 역대 정보대학원장, 타 학과 교수들, 정보기술대학원 학학생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의 마음을 나눴다. 먼저 조동성 총장의 특강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조동성 총장은 우리대학에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준 정보기술대학원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단발성 행사가 아닌 30년 후에도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는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어 성미영 정보기술대학원장의 기념사와 역대 원장 감사패 전달식을 거쳐 한국 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동문회 사무총장 자제 최혜지 씨가 멋진 축하공연을 선보이며 자리를 빛내주었다. 그리고 만찬을 즐기며 우리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정보기술대학원은 이번 기부금을 전달받게 될 학생들에게 단 하나만 부탁하고 싶다. 바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다.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베풀 줄도 모르기 때문에 꼭 고마움을 느끼고 훗날 그 감정을 기억해 어려운 후배들을 돕길 바란다.

#### 기부의 시작, 돈 아닌 사람의 변화

행사 후 정보기술대학원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약정회를 준비하며 소통했던 시간을 통해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학팀은 원우회와 동문회가 더나은 환경에서 학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원우회와 동문회는 학교의 관심에 고마움을 느끼고 본인들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처럼 기부는 남을 위해 돈을 쓰는 행위이지만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값진 일임에 틀림없다. 정보기술대학원 동문 약정회에 참석한 동북아국제통상학부도 내년 20주년을 맞아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 걸 보니 이미 기분 좋은 움직임이 시작됐나보다. 기부는 돈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 행사 그 이상의 의미를 만들었고, 앞으로 우리대학이 나아갈 밑거름이 되었다. 내년 그리고 내후년, 계속해서 우리대학에 다양한 나눔의 씨앗이 퍼져 더 큰 행복으로 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발전기금 소식

#### 공연예술학과 한국무용전공 학생들, 100만 원 기탁

지난 7월 20일, 우리대학에 특별한 발전기금이 전달됐다. 지금껏 수없이 많은 발전기금 기부가 있었지만 이번엔 더욱 뿌듯하고 흐뭇했다. 그 이유는 교수도, 동문도, 교직원도 아닌 우리 학생들이 직접 모은 돈이기 때문이다. 기부의 주인공은 바로 공연예술학과 한국무용전공생인 장유진 외 15명. 이들은 7월 초 참가한 '제35회 전국대학무용경연대회'에서 군무부문 금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받은 100만 원 전부를 기부했다. 담당 지도교수도 학생들의 기부 소식을 듣고 좋은 생각이라며 힘을 보태주었다.

학생들은 "우리대학에 한국무용전공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학생이 많아 아쉽다. 기부를 통해 우리 과도 알리고 기부금이 한국무용을 알리는 데에 사용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동성 총장은 "학생들의 예쁜 마음에 감동했다. 소중한 기부금이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2017년도 1학기 장학증서 수여식

지난 6월 28일, 재단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2017년 1학기 장학증서 수여식 행사가열렸다. 재단 장학금 전달식은 매년 2회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인천대학교발전기금장학금에 90명, 용정장학기금 장학금에 6명이 수여 받았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조동성 총장은 "오늘 이렇게 뜻 깊은 장학증서를 수여하게 돼 매우기쁘다. 오늘 수여하는 장학증서는 우리대학에 많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동문, 학부모 및 기업 그리고 교직원의 후원으로 마련된 장학금이다. 많은 분들의 정성을 깊이 새기고 더 열심히 역량을 키워 국가와세계에 우리대학을 널리 알리는 인재가 되길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 경영대학원 MBA과정 34기 원우회, 발전기금 1천만 원 전달

우리대학 경영대학원 MBA과정 34기 원우 (원우회장 신명희) 일동이 조동성 총장에게 대학발전기금 일천만 원을 기부했다.

경영대학원 MBA과정 34기 원우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학업을 이어나가는 경영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장학금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동성 총장은 원우들의 뜻을 헤아려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감사패를 전달하며 대학발전과 학생 복지를 위한 원우들의 정성에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경영대학원 MBA과정 원우들은 지난 2월에도 33기 원우들이 2,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 황해아카데미 참가 中대학 교수진, 발전기금 100만 원 기부

지난 7월 10일 송도 경원재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중국대학 한국어 교수 연수 포럼 (Yellow Sea Academy)'에 참가한 중국대학교수진 25명이 대학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이번 포럼에는 중국 주요대학에 재직 중인 한국어학과 교수 25명이 참여해 한국어문법교수법, 한국역사·문화·예술, 한국어 통번역교수법, 한국어평가교수법 등 한국어 교육에 관한 교수법 및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이 끝난 후 Yellow Sea Academy에 참 가한 중국대학 교수 일행은 "이렇게나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준 인천대에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1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조동성 총장은 "우리대학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발전기금을 기부해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부한 발전기금은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뜻 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 ▦ 기부 현황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허봉희	개인	300,000,000
정상철	교원	100,000,000
(주)에스피지	기업	9,000,000
조동성	교원	7,000,000
성미영	교원	3,000,000
사회복지법인 미래국제재단	기업	2,000,000
유명희	개인	2,000,000
김재훈 경영대학원 MBA 34기 원우회	동문	1,500,000
변윤식	교원	1,500,000
정일선 경영대학원 MBA 34기 원우회	동문	1,500,000
정보기술대학원 총동문회	동문	1,300,000
경영대학원 MBA 34기 원우회	단체	1,200,000
김말숙	동문	1,200,000
(주)태영건설	기업	1,000,000
김대유(탑에이테크놀로지) 정보기술대학원 원우회	기업	1,000,000
김명주 경영대학원 MBA 34기 원우회	동문	1,000,000
김선혁(카스카)	기업	1,000,000
서한나 경영대학원MBA 34기 원우회	동문	1,000,000
정보기술대학원 원우회	단체	1,000,000
제3기 엘로우 씨 아카데미	기타	1,000,000
한상혁	직원	1,000,000
허정나경 경영대학원 MBA 34기 원우회	동문	1,000,000
장해선 경영대학원 MBA 34기 원우회	동문	935,000
조현호 경영대학원 MBA 34기 원우회	동문	915,000
곽병선	교원	750,000
황미옥	교원	700,000
권혁준/(주)시트론정보통신	기업	600,000
이정연(임소영)	개인	600,000
고춘자 정보기술대학원 총동문회	동문	500,000
류제진 정보기술대학원 총동문회	동문	500,000
문영선 정보기술대학원 총동문회	동문	500,000
심재기 경영대학원 MBA 34기 원우회	동문	500,000
임병미	직원	500,000
장명진 정보기술대학원 총동문회	동문	500,000
송다영	교원	489,589
박주문	교원	450,000
조중휘	교원	450,000
배양섭	교원	600,00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이재성	동문	400,000
(주)고려국제운송	기업	300,000
(주)올인원시스템	기업	300,000
강상형 정보기술대학원 총동문회	동문	200,000
강정원 정보기술대학원 총동문회	동문	100,000
강현철	교원	300,000
곽문선	조교	300,000
구경헌	교원	300,000
김문수	개인	300,000
김상현	동문	300,000
김승태 드림오피스(세연인포)	기업	300,000
김연수(성우로지스) 정보기술대학원 원우회	기업	300,000
김장성	동문	300,000
노영돈	교원	300,000
노창근	동문	300,000
박근영 정보기술대학원 총동문회	기업	300,000
박윤원/(주)온엔오프	기업	300,000
박종승	교원	300,000
양미혜	교원	300,000
윤용식	직원	300,000
이군익	동문	300,000
이병관	동문	300,000
이상동	직원	300,000
이영애	교원	300,000
이은주	교원	300,000
이정식 / (주)한마	기업	300,000
이종열	교원	300,000
정광훈 / 유카스에너지	기업	300,000
차기율	교원	300,000
한창원	동문	300,000
홍진배	교원	300,000
홍필기 서인천현대모터스 주식회사	기업	300,000
황민식/해천이엔씨	기업	300,000
윤충진 경영대학원 MBA 34기 원우회	동문	250,000
김유신 / 미림전력	기업	200,000
김일형 정보기술대학원 원우회	동문	200,000
김정우 경영대학원 MBA 34기 원우회	동문	200,000
김종욱 정보기술대학원 총동문회	동문	100,000
김종완 정보기술대학원 총동문회	동문	100,00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배수민	동문	200,000
정보기술대학원 원우회		
유정희 / (주)JH에너지	기업	300,000
윤두석 정보기술대학원 원우회	동문	200,000
이경석 (주식회사 보성) 정보기술대학원 원우회	기업	200,000
이성옥	동문	300,000
이순득 / (주)진성엔텍	기업	300,000
이승민	동문	200,000
전성택	교원	300,000
전혜경 정보기술대학원 총동문회	동문	200,000
최광호 정보기술대학원 총동문회	동문	200,000
추성호 / 인성환경	동문	300,000
황현배	동문	300,000
김관호	교원	150,000
김숙진	동문	150,000
김승환	직원	150,000
김흥근	동문	150,000
박지선	교원	150,000
설경자	직원	150,000
소대수	동문	150,000
유정흔	동문	150,000
윤용	동문	150,000
이숭열	직원	150,000
이종헌	동문	150,000
임승빈	직원	150,000
임정훈	교원	150,000
제희태	동문	150,000
박연주 정보기술대학원 원우회	동문	125,000
석철수 정보기술대학원 원우회	동문	125,000
양두길 정보기술대학원 원우회	동문	125,000
이승규 정보기술대학원 원우회	동문	125,000
이승윤 정보기술대학원 원우회	동문	125,000
이재석 정보기술대학원 원우회	동문	125,000
정성교 정보기술대학원 원우회	동문	125,000
조민재 정보기술대학원 원우회	동문	125,000
김삼현 / 가온종합물류(주)	기업	120,000
김광민 정보기술대학원 원우회	동문	100,000
김교흥	동문	150,000
김성동 정보기술대학원 총동문회	동문	100,00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김영섭 정보기술대학원 원우회	동문	100,000
김지훈 정보기술대학원 원우회	동문	100,000
김철민 정보기술대학원 총동문회	동문	100,000
김환식	직원	150,000
박태준 정보기술대학원 원우회	동문	100,000
심광흠	동문	150,000
우정현 정보기술대학원 총동문회	동문	100,000
이 <b>강은</b> 정보기술대학원 원우회	동문	100,000
<b>임재근</b> 정보기술대학원 총동문회	동문	100,000
<b>임치형</b> 정보기술대학원 원우회	동문	100,000
장태관 / GVS(주)	기업	100,000
<b>정교석</b> 정보기술대학원 총동문회	동문	100,000
<b>정병희</b> 정보기술대학원 총동문회	동문	100,000
채수범 정보기술대학원 원우회	동문	100,000
황성학 정보기술대학원 총동문회	동문	100,000
황용	동문	100,000
고민정(조교)	조교	90,000
김규만	동문	90,000
김태성	교원	90,000
박은경	교원	90,000
우인성	교원	90,000
윤영돈	교원	90,000
이창연	교원	90,000
장인우	교원	90,000
구태환	교원	75,000
박근수	교원	75,000
임일진	교원	75,000
하병훈	교원	75,000
권오중	교원	60,000
김보슬	동문	60,000
김연자	직원	60,000
문병수	교원	60,000
박종석	직원	60,000
안춘순	교원	90,000
오복자 / 국제광고(전무홍)	동문	60,000
윤덕영	동문	90,000
이준호	직원	60,000
최명종	직원	60,000
김병훈	교원	50,000
- <del>-</del>		,

# ▦ 기부 현황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주현일	개인	50,000
고덕봉	직원	30,000
김경아	조교	30,000
김규원	교원	30,000
김기만	직원	30,000
김영목 승일자동차공업	기업	30,000
김윤신	교원	30,000
김일남	교원	30,000
김재철	동문	30,000
김지용	교원	30,000
김지훈	동문	30,000
김치용	동문	30,000
김형기	직원	30,000
문종욱	동문	30,000
문준영	교원	30,000
박민범	교원	30,000
박영돈	교원	30,000
박정연	직원	30,000
박정희	동문	30,000
박진우	교원	30,000
배가람	동문	30,000
서상범	직원	30,000
신천수	직원	30,000
안동찬	직원	30,000
윤병선	동문	30,000
이두영	동문	30,000
이문학	교원	30,000
이상봉	동문	30,000
이성호	동문	30,000
이애영	직원	30,000
이양현	조교	30,000
이정희	직원	30,000
이종훈	동문	30,000
이진희	직원	30,000
임찬옥	직원	30,000
임태은	교원	30,000
장소영	직원	30,000
장현주	직원	30,000
최민경	조교	30,000
최재혁	직원	30,000
한상길	조교	30,000
한종민	직원	30,000
허광현	학부모	30,00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허성희	직원	30,000
홍현경	조교	30,000
김종인	직원	20,000
박규봉 서진엔지니어링(주)	기업	30,000
유병순	조교	30,000
이병기	동문	30,000
윤희랑	동문	15,000

# ■ 우수리 현황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유재은	조교	28,870
우제대	직원	28,660
김내현	교원	28,250
박정준	교원	27,780
김혜미	교원	27,740
강상혁	교원	27,270
안춘순	교원	27,190
황미옥	교원	26,810
윤세원	교원	26,720
이은직	조교	26,230
조사옥	교원	25,300
전용재	직원	25,080
김선희	교원	25,000
곽문선	조교	24,860
최재웅	직원	24,700
윤춘화	직원	24,380
조천순	직원	24,300
전지혜	교원	24,180
정영식	교원	24,090
이진원	교원	23,910
윤정아	직원	23,770
김영철	직원	23,700
한상정	교원	23,570
김창우	직원	23,470
윤효훈	직원	23,420
서정현	교원	23,410
임병미	직원	23,260
심인애	직원	23,210
최재혁	직원	23,160
민홍기	교원	23,140

소병순	식원	23,120	막산신	<u></u> 교원	19,740
김평원	교원	23,110	박인선	교원	19,680
권정호	교원	23,000	은주영	직원	19,680
윤창근	직원	22,950	정영민	직원	19,610
김수현	조교	22,780	차지수	조교	19,540
김산정	직원	22,640	김동호	직원	19,330
우요섭	교원	22,600	김응철	교원	19,330
전재철	직원	22,550	조봉래	교원	19,190
박홍규	교원	22,510	최윤정	직원	19,130
유혜경	교원	22,500	안영효	교원	19,120
정경란	직원	22,490	박지훈	교원	19,080
이진섭	직원	22,460	윤태웅	교원	19,060
송원용	교원	22,440	경명진	직원	19,020
김진호	교원	22,170	이원경	교원	19,010
장희경	직원	22,050	박시우	직원	18,860
최계운	교원	22,020	방재한	직원	18,860
송다영	교원	21,830	전찬기	교원	18,860
김동배	교원	21,790	이원준	교원	18,820
김광열	직원	21,780	정해준	교원	18,760
윤용식	법인임원	21,590	윤지영	조교	18,720
황병희	교원	21,540	송현호	교원	18,710
이건상	교원	21,510	여운호	교원	18,650
김우일	교원	21,440	채숙희	교원	18,650
박형의	직원	21,420	김찬주	교원	18,600
장인우	교원	21,400	이창연	조교	18,590
유은정	조교	21,150	강치후	조교	18,570
송상화	교원	21,080	김정업	조교	18,500
빈상찬	직원	20,920	홍기용	교원	18,320
박지선	교원	20,850	한상혁	직원	18,160
신은기	교원	20,810	임순	교원	18,090
조중휘	교원	20,640	이민철	교원	18,040
박미선	직원	20,590	강승택	교원	17,980
노정호	직원	20,530	김태완	교원	17,960
차기율	교원	20,510	정옥경	교원	17,940
김광수2	직원	20,500	임지현	직원	17,830
정연서	조교	20,500	곽준경	조교	17,710
안승범	교원	20,460	배양섭	교원	17,690
김성연	교원	20,190	한양호	직원	17,670
전석희	교원	20,180	김경아	조교	17,400
구선희	직원	20,160	설경자	직원	17,390
변윤식	교원	20,090	고덕봉	직원	17,380
박재일	직원	20,040	김재광	교원	17,350
고은희	직원	19,800	노지승	교원	17,330
장진주	직원	19,790	최성욱	교원	17,280
박은경	교원	19,780	김학만	교원	17,150
안정규	교원	19,760	양운근	교원	17,110

조명순 직원 23,120 박찬진 교원 19,74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 **무통장 후원하기** 농협 1325-01-000611 예금주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3
이윤정	조교	17,110	김진한	교원	14,690	김동규	직원	11,620	
최병길	교원	17,080	이나영	직원	14,530	박종돈	교원	11,620	
최윤경	교원	17,000	최원	교원	14,500	허성희	직원	11,560	
권혁준	교원	16,920	신미옥	직원	14,470	이윤	교원	11,460	
강효현	직원	16,890	조길수	직원	14,250	심형보	교원	11,400	
이지은	교원	16,810	박재윤	교원	14,220	박용호	교원	11,390	
홍현경	조교	16,780	정보람	조교	14,210	박정훈	교원	11,190	
황영삼	교원	16,730	문은호	직원	14,130	권정희	직원	11,180	
이동후	교원	16,700	박승준	교원	14,130	이창길	교원	11,140	
안익태	직원	16,670	문옥미	직원	14,020	김광수1	직원	11,080	
김수진	교원	16,610	이영애	교원	13,990	심민석	교원	10,780	
최은미	교원	16,350	양해숙	직원	13,980	안순길	교원	10,630	
이향숙	교원	16,290	이선영	조교	13,860	정승미	직원	10,410	
김복영	교원	16,210	김형기	직원	13,810	신용권	교원	10,350	
신광섭	교원	16,210	이지영	조교	13,760	박성완	교원	10,320	
김선호	교원	16,200	조재인	교원	13,740	황상순	교원	10,260	
이병학	직원	16,070	나인수	교원	13,690	안효진	교원	10,220	
오은하	교원	16,060	김익수	교원	13,670	김승규	교원	10,120	
홍영진	직원	15,940	전병준	직원	13,540	장현주	직원	10,120	
김준석	교원	15,910	최영미	조교	13,510	김선경	직원	10,100	
고혜영	교원	15,800	김환용	교원	13,310	김기준	교원	10,010	
신현주	조교	15,800	김순홍	교원	13,170	신원태	교원	10,000	
우인성	교원	15,710	장서은	직원	13,050	김종인	직원	9,980	
이연희	직원	15,630	김정민	직원	13,000	안호선	교원	9,950	
서상범	직원	15,620	김현우	직원	12,980	권기영	교원	9,900	
서종국	교원	15,580	김영주	직원	12,960	이한영	교원	9,770	
김재곤	교원	15,560	김형근	직원	12,950	오지은	조교	9,760	
여기태	교원	15,540	최윤희	직원	12,920	백종숙	직원	9,740	
박상임	직원	15,510	전동근	교원	12,850	천성철	교원	9,710	
민문기	직원	15,480	양승모	조교	12,770	이석기	직원	9,680	
홍수민	직원	15,460	주현태	교원	12,690	이향숙	직원	9,650	
전동진	조교	15,400	이종혁	직원	12,580	김용민	교원	9,620	
이승매	교원	15,360	박문주	교원	12,500	김영희	교원	9,610	
김정기	직원	15,270	권오미	직원	12,450	최일용	직원	9,510	
유종근	교원	15,270	김종호	직원	12,390	홍현숙	직원	9,500	
이희관	교원	15,200	공용득	직원	12,370	김관식	직원	9,450	
이영석	교원	15,190	채진석	교원	12,360	김순옥	직원	9,250	
홍선표	교원	15,140	김은영	교원	12,330	임정훈	교원	9,170	
이원종	교원	15,130	황명환	교원	12,310	장소영	직원	9,020	
이효은	조교	15,120	이준호	직원	12,220	황태진	직원	8,970	
이병하	교원	15,030	박종승	교원	12,060	김동욱	교원	8,960	
강상미	직원	14,840	이병관	조교	11,930	이운형	교원	8,920	
오혜영	조교	14,820	황선용	직원	11,890	최병심	직원	8,720	
한승헌	직원	14,770	정경찬	직원	11,870	우금순	직원	8,670	
박주문	교원	14,750	오원선	교원	11,850	이도균	교원	8,660	
임경환	교원	14,750	손정숙	직원	11,840	여인철	교원	8,64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윤종구	직원	8,590
황미숙	조교	8,510
조혜영	교원	8,370
조현우	교원	8,280
강연제	직원	8,250
이상동	직원	8,170
최형우	직원	8,100
김정아	직원	8,000
최성을	교원	7,880
정선영	교원	7,690
이시자	교원	7,640
박정승	직원	7,590
정종태	교원	7,520
방동인	직원	7,500
유재란	직원	7,430
이영수	교원	7,410
김성희	교원	7,250
이황주	직원	7,240
이찬식	교원	7,180
박주연	직원	7,040
박승진	교원	6,910
김장균	교원	6,770
김윤신	교원	6,620
나인강	교원	6,460
이숭열	직원	6,360
배순희	직원	6,330
이승철	직원	6,080
한종민	직원	6,080
강현옥	교원	5,940
강하라 홍현표	교원 직원	5,690
최인수	직원	5,250 4,970
의진희	직원	4,970
민금홍	직원	4,150
이충우	직원	3,920
김강우	교원	3,890
민철기	교원	2,680
김기만	직원	2,370
안해균	직원	1,360
김은선	직원	1,250